

2019년 2학기 인문역사지리탐방(수원일대)보고서

2316 이수환

1. 일시: 2019.10.26.(토)
2. 장소: 수원, 용인 일대



1학기 때의 좋은 기억을 품고 도착한 수원은 따사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추웠던 수원의 날씨처럼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제일 먼저는 수원화성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서 지리교과나 역사교과, 심지어는 영어 교과에서 배운 내용까지도 연계되어 나와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원화성의 축조 계기와 그에 관련된 정보들, 거중기, 공사실명판과 표시석, 반차도 등등 이름만 알았지 자세히는 몰랐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서 좋았다. 그 후에는 수원화성의 대표적인 문들을 따라서 걸으며 답사를 계속 진행했는데, 화성 건물들과 웅장한 성문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엄청 났다. 과연 이것들이 몇 백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때로는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의 정교함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흔적

들 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화성에서 조금 신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포구이다. 총을 쏘거나 적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포구는 성안에서 밖을 볼 때 예는 시야가 훨씬 잘 보이지만, 반대로 밖에서 안을 보려고 하면 절대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인류가 눈부신 산업발전을 겪고 기술의 혁신화를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어서 조선시대의 발명품들은 볼품없고 그저 별거 아닌 기술일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구는 실로 과학적이어서 나의 감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국 민속촌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은 실망한 장소였다. 한국 민속촌은 SNS를 통해 굉장히 마케팅이 잘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내가 생각한 민속촌은 한국전통의 가옥과 생활모습을 열볼 수 있는 건물과 지형을 한데모아 마을 형식으로 만들고 그에 맞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재미와 추억을 선물하는 공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친 인기와 상업화 때문인지, 사람들은 지나갈 틈도 없이 많고, 분장한 캐릭터 들은 그저 사진 찍어주기에 바빴다.

그리고 가장 의문점으로 남았던 것은 왜 민속촌 안에 놀이공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가 민속촌의 마케팅과 기획 관련 책임자 였다면, 한국 민속촌 이라는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줄이고,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설계했을 것 같다.